

3대 군민복지 사업 '호응'

순창군,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 버스단일요금제 · 경로당 급식도우미

순창군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대 군민복지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군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3대 복지정책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버스단일요금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이다.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전 군민이 혜택을 받는 복지 정책이다.

먼저 지난 1월 문을 연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은 개관 90일만에 201가구가 회원 가입해 이용 중이며, 누적 이용자 수 4,974명을 기록했다. 평일 65명, 주말에 106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어린이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군은 2월부터 기존 일,월요일 주 이틀 휴일제에서 일요일 주 하루 휴일제로 변경했다.

장난감 대여실과 액션볼 놀이실, 역할 놀이실, 장난감 소독실을 갖추고, 335종에 988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해 놓았다.

군은 순창읍 뿐만 아니라 면지역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무료 장난감 배달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 2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버스단일



순창군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대 군민복지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요금제도 전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은 950원, 학생은 45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순창 어디든 갈 수 있다.

기존 버스 기본요금인 10km 이내 1400원으로, 복층 추월 갈때까지 요금은 4,750원에 달해, 하루 왕복시 최대 7,500원까지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취약계층과 원거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3가지 주민 수혜사업은 지역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 호응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복지 정책 개발과 시행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베스트자율방범대 인증패 수여

순창경찰서, 순화자율방범대 찾아 감사패 전달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29일 전북지방경찰청 '제41회 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정된 순화파출소 순화자율방범대를 찾아 인증패를 수여하고 유공 대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태형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유성남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장, 김영 순창군자율방범연합회장, 이상엽 순화자율방범대장 및 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베스트 자율방범대는 민·경 공동체 치안 강화와 방범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것으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종합평가해 우수한 자율방범대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이상엽 대장을 중심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된 순화파출소 자율방범대는 평소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방범취약 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자체 방범간담회 실시,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순찰 등 다방면으로 왕성하게 노력한 결과 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형 서장은 "생업과 가정이 있음에도 지역사회 안전과 민경협력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식

지리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준공식이 지난 30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남원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참여조직 및 농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식전행사인 터울림 농악놀이로 시작하여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테이프커팅, 시설견학, 오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지리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6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을 통해 20억원(기금 6억, 도비 2억, 시

비 4억, 자부담 8억)을 투자하여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938번지(지리산 IC 근처)에 건립되었으며 지난해 말 추기로 시행된 지리산농협 산지유통센터 광장포장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하였다.

지리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건물 연면적 3,725㎡의 규모로 선별장(2,275㎡)과 급속냉동냉장시설, 선별기 등의 시설을 갖춰 연평균 3,000여톤의 농산물을 선별할 수 있으며, 올해 농산물 상품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사과, 방울토마토 선별라인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조갑너 살풀이 명무관, 남원에춘서 개관식

관광남원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조갑너 살풀이 명무관'이 지난 31일 남원에춘서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조갑너 살풀이 명무관'에는 조 명인이 생전에 사용한 유품과 공연사진, 영상, 관련 도서, 보도자료 등 330여점의 기증품과 수집자료가 전시된다.

또, 매달 살풀이, 검무, 승무 등 각종 전통춤 공연이 펼쳐진다.

일반인과 관광객들에게는 전통춤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전통혼례, 노상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조 명인은 1923년 남원에서 태어나 제1회 춘향제인 1931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승무와 검무, 살풀이를 취 명무(名舞)라는 칭호를 받은 명인이다. 살풀이춤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명인은 또, 1935년 승사교 완공식과 1971년 광한루 완월정 낙상식 공연 등에 출연해 살풀이 춤의 진수를 보여줬다. 국립민속국악원 <명무 조갑너 춤>(춤, 조갑너), 서울 페스티벌 <천년만세>, 국립국악원 <춤>(장사소리판) 등에서 공연은 그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국소년체전 전북도 대표선수 5명 배출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서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 운영되는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충주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전북도 대표선수 5명을 배출했다.

작년 4월 출범한 남원 스포츠클럽은 광주, 부산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체육인재 발굴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궈낸 성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7년 상하반기 평가에서 두 광역시를 제치고 최고의 클럽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복싱 54kg급 최원태, -42kg급 박효준, -50kg급 유재현, 선수는 지난 3월 24~26일 전주 종합경기장 승리관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중등부 선발전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대표로 최종 선발되었으며,

테니스 이승현, 박용수 선수는 초등부 대표로 선발되어 테니스 고장 남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 운영되는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충주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전북도 대표선수 5명을 배출했다.

원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최초로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 복싱 중등부 54kg급 최원태 선수는 "그 동안 금메달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였고 경험과 실력을 충분히 쌓은 만큼 우승을 확신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현재 남원 거점스포츠 클럽에서는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 등 4종목에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동호인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국가대표 출신 우수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양성하여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구림면, 건강 천사 의료봉사

순창군 구림면에서는 지난 30일 구림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실은 건강 천사 의료봉사' 활동이 진행돼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줬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구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체)추위로 열렸다.

진료는 조선대학교 전문의 15명과 간호사 등 50여명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2대의 의료차량을 이용해 무료로 진행됐으며,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영상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 농촌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7개 과목에 한해 이뤄졌다.

또 사전예진, 인바디검사, 약 처방 등도 진행돼 면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민원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 발마사지기 1대를 기증하고, 진료자들은 칫솔치약세트, 손톱깎이 등 의료기념품도 증정해 훈훈함을 더했다.

조태봉 구림면장은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농촌지역에 능력 있는 전문의로진이 재능기부를 해주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과 연계해 구림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최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의 객관적인 확인·평가를 거쳐 매 3년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남원시의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급식시설 식중독 발생률 등을 포함한 '식생활 안전관리 정도(40점)', ▲결석, 비만관리 등 '영양 섭취 관리정도(40점)', ▲지자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도 등의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20점)' 등 3개 분야의 29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82.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전국 1위로 평가됐다. /남원=유영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